

동구,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기술 활용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공로

시종량제배출함·청소차 도착정보·동구라미 온 운영

광주 동구가 ICT 개발과 융복합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동구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기관 등에 포상하는 제도다.

동구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종량제 배출함(특허 출원)’과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자원순환 플랫폼 앱 ‘동구라미 온’을 통해 자원순환 시민 참여에 편리함을 더함으로써, 골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종량제 배출함’은 동구가 특허 출원한 제품으로 AI가 종량제봉투만 인식해 투입구를 개폐하는 시스템이다.

CCTV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보안등으로 어두운 골목을 밝게 비추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외부 전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량화 및 제작단가 절감, 디자인 혁신,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는 내 집 앞 쓰레기 배출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버스도착정보시스템(BIS)과 같이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실생활에 필수적인 플랫폼으로서 안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동구라미 온’을 통해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면 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캔·페트병 회수기 등 위치·상태를 보여주는 배출함 지도, 다화용기 대여, 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택 정장은 “동구의 탄소중립 정책은 AI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주민 실천이 연계돼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기아차 광주공장 산업현장 견학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명 방문
실제 제조과정·산업구조 체험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명과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산업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협조로 마련된 것으로, 참여자들은 홍보동 교육장에서 공장 현황 안내와 자동차 생산 과정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브랜드 체험공간 관람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기아 AutoLand 제1공장의 주요 생산 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실제 제조 과정과 산업 구조를 체험했다.

견학에 참석한 한 이용자는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명과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산업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을 듣고 실제 제조 과정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견학을 초청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은용철 지회장은 “장애인분들과 함께 산업현장을 둘러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숙 관장은 “장애인들이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

번 견학을 통해 이용자들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업재활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산불 실전훈련으로 대응력 강화

22개 시군 참가 지상진화·통합지휘 경연...영광군 종합대상

전남도는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5년 산불 지상진화 및 현장통합지휘 경연대회’를 지난 14일 실전 훈련으로 개최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경연대회는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 진화 기술과 통합지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실전형 대회다. 매년 진행되는 신속한 대응과 지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12명씩 총 264

명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공무원 2명(현장 지휘본부), 진화대원 10명(지상진화팀)으로 구성해 장비 운용, 상황판 작성, 진화계획 수립 등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했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휘차량 전개, 드론 영상 송출, 산불관리시스템 접속 등 지휘본부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진화차, 펌프, 호스, 수조 등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진화 과정을 평가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5년 산불 지상진화 및 현장통합지휘 경연대회’를 지난 14일 실전 훈련으로 개최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

특히 지휘차량 1대, 드론, 노트북, 진화차, 펌프, 간이수조 등 실제 장비를 전면 배치해 참가자가 실제 산불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경연 결과 신속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와 지상진화대원 간 숙련된 진화 장비 운용능력, 팀워크를 자랑한 영광군이 종합 대상을 차지했다. 이현규 기자

광주교통공, 송원대 철도아카데미 교육생 현장실습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는 최근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을 펼쳤다.

공사와 송원대학교 간의 신약 협약에 따라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광주도시철도 기관사 등 현장 전문 인력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중정비고 견학, 선로전환기 취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감 있게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열차 시운전을 포함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현장 활동 위주의 생생한 실습으로 전기차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했다는 데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미래 철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교육 참여자들이 앞으로 훌륭한 도시철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양농협 여성대학 총동문회 행복나눔봉사단 150여명은 단감 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광양농협, 생강·단감 농촌일손돕기 전개

광양농협은 여성대학 총동문회 행복나눔봉사단과 다문화가정 수료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나가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

광양농협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농가를 찾아 생강과 단감 수확 일손돕기를 벌였으며 오는 20일에도 일손돕기를 실시한다.

농협은 재배농민들을 위해 생강 종강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종자소독제, 토양살충제, 토양개량제, 제초제 등 생강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허순구 농협장은 “농협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에 맞는 지원과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허용영·박영옥씨 아들 신익군, 박원우(호남일보 대표이사)·박동희씨 딸 화향양=11월29일(토) 오전 11시30분,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3층 펠리체.

△김종민(광주매일신문 논설실장)·이순영씨 아들 정수군, 이한섭·서정아씨 딸 예진양=11월29일(토) 오전 11시, 드메르웨딩을 본관4층 라비엔.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신현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11월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알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

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김태규(전남매일 사자부 국장) 별세=11월 16일, 빈소: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

운세 (음력 9월 29일)

48년생 반기는 일가 없으니 슬프구나
60년생 우환이 예상되므로 외출 삼가하라
72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4년생 누군가와 연관되었을 경우 양보
96년생 허영 사치 금물

51년생 투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63년생 침착하게 일을 진행해야 결실을 본다
75년생 출세나 승진수가 보인다
87년생 해 입을 수 있으니 동업체의 거절하라
99년생 충격을 받기 쉬운 운 차를 조심

54년생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66년생 거제도 어려운데 이익이 남겠는가
78년생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90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

57년생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밀어 부쳐라
69년생 남매 당하지 않으려면 언쟁 삼가하라
81년생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93년생 이성 교제 모두 원만하지 못할 운세

49년생 뒷방의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 만날 것
61년생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
73년생 호전되며 만사형통하니 행운의 날
85년생 과감히 밀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97년생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다

52년생 피로에 쌓이기 쉬우니 유의
64년생 마음이 갈팡질팡하니 일이 더디게된다
76년생 새로운 일에 손을대면 이익이 많을 것
88년생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55년생 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67년생 기반을 이뤄가는 면모
79년생 주변의 인정받는 날
91년생 예산이 파산이다

58년생 원거리 여행은 금물이니 삼가하라
70년생 기반을 이뤄가는 면모
82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뤄지기 어렵다
94년생 천 버티면 만 버티면 참으십시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요 요청된다
62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보살피라
74년생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한다
86년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98년생 만인이 인정 받는 날

53년생 잃었던 것을 찾고 막혔던 길 트인다
65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된다
77년생 순서를 무시하면 혼란에 빠진다
89년생 두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운세

56년생 밤심하다가는 역장 무너질 수도 있다
68년생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마라
80년생 헛소문 믿고 얘기하다간 욕 먹는다
92년생 새 자취시험을 시작하는 것 좋겠다

59년생 본래의 의도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71년생 집에 있는게 좋다
83년생 겸손하면 더 존귀한 위치에 놓인다
95년생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운세